

선진 기술 획득과 M&A

金 相 權
(산업 혁신 연구실)

첨단 병기를 앞세운 서방 국가의 Gulf전 승리는 기술력이 국력임을 새삼 증명 해 주었다. 이와 같은 기술의 중요성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게 하였고, 이에 따른 부메랑 효과는 선진 기업으로 하여금 후발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기술 도입의 어려움은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우리 나라와 같은 국가에게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 획득을 위한 M&A의 사용은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를 우회하여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더우기 글로벌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M&A를 통한 기술 획득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 기술 획득 방법으로서의 M&A

기술 획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방법은 자체 개발이고 둘째번 방법은 필요한 기술을 기술료를 주고 이전받는 방법이고, 셋째번은 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한 개발이며, 넷째번은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자체 개발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 축적을 할 수 있으나 오랜 연구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기술 획득에는 부적합하며,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은 대부분 분야에서 선진 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뒤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 습득은 선진 기업의 기술 이전 기피와 과도한 기술료 부과로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반면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획득은 기술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과 서로 다른 기업 조직의 통합에 따르는 어려움은 있으나, 인수 기업의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술 획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술 보유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기술 이전으로 생기는 부메랑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정 기술 이전 요구 때보다는 쉽게 응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우기 글로벌화에 따른 현지 시장과 밀착된 연구를 하기 위한 R&D 거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획득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기술 획득을 위해 해외 기업을 인수했을 때 기술 획득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 첫째가 인수 대상 기업이 인수 기업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기업 인수를 통해서 경쟁자를 제거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면 인수된 기업의 기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인수를 통한 기업 규모 증대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II. 국내의 예

〈표 1〉 국내기업의 해외 기업 M&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86	'87	'88	'89	'90	'91(1/4)
금액	23	10	17	435	111	50
건수	5	5	7	5	8	2

자료 : 서울 경제 신문, 1991. 3. 26

국내에서 기업 인수 활동은 대부분 그룹 내의 영역 조정을 위해 계열 기업 간에 이루어져 왔거나 정부의 부실 기업 정리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해외 기업 인수는 80년 중반부터 원재료 확보, 선진 기술 도입,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블럭 경제의 진전에 따른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해외 기업 인수는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기술 획득을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형태를 보면 기술 접목형, R&D 거점형, 기술 도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 접목형은 기업 인수를 통하여 기존의 기술과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연관되는 기술을 확보하여 타기업의 기술적 지배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업 인수이며, R&D 거점형은 해외의 우수 기술 인력을 사용하여 현지 시장과 밀착된 연구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 기업 인수를 말한다. 그리고 기술 도입형은 기술 도입의 변형된 형태로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기술 보유 기업이 기술 이전 조건으로 기술 보유 기업 주식 일부의 인수를 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술 보유 기업 지분 매입을 말한다.

최근에 대우 통신에 의한 컴퓨터 보드 개발 전문 회사인 미국 르네상스사의 인수는 기술 접목형이라 할 수 있는데, 대우 통신은 이 인수로 특수 용도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칩 보드 개발 및 제작까지 전과정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R&D 거점형

의 예는 금성 통신의 미국 폰테크사(Phone Tech) 인수를 들 수 있는데, 금성사는 폰테크사를 인수, 미국의 현지 법인의 R&D 거점으로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 도입형 기업 인수의 예로는 삼미 특수강의 영국 누비눅스사 25% 지분 인수와 금성사의 제니스사 5% 지분 인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삼미 특수강은 누비눅스 생산 특허 기술을 도입했으며, 금성사는 완전 평면 브라운관 기술을 이전받았다.

〈표 2〉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M&A의 예

연도	인수 기업	피인수 기업	인수 기술
91. 8	한국 종합기계	UBI(미국)	베어링 기술
91. 7	대우 통신	르네상스(미국)	반도체 설계
91. 4	삼미 특수강	누비눅스(영국)	생산 기술
91. 2	금성사	제니스(미국)	FTM 제조 기술
90.12	태일 정밀	NMI(미국)	자성 기술
90. 6	영창 약기	퀴즈(미국)	디지털 피아노
90. 2	서통	아메리칸 테이프	접착 테이프 기술
88. 6	금성 통신	폰테크	무선통신단말기

III. 일본의 예

〈표 3〉 일본의 M&A 거래 건수

	85	86	87	88	89
일본-일본	163	226	219	223	178
일본-외국	100	204	228	315	294
외국-일본	26	21	22	17	11

일본 기업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엔화 강세로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외국 기업과 부동산을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구 사들였다. 일본 소니사의 콜롬비아 영화사 매수와 미쓰비시 부동산의 록펠러 센터 구입은 매스컴을 통해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예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일본 기업의 외국 자산에 대한 인수가 일본의 무역 흑자 처분 전략으로 대장성의 전략적 지도 하에

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듯하다.¹⁾

〈표 4〉 일본 기업에 의한
외국 기업 인수 합병 추이 (단위 : 건수)

연도 지역	84	85	86	87	88
미국	33	55	126	120	167
EC	6	8	28	36	52
NICs	1	15	22	27	24
ASEAN	0	4	8	12	17
기타	4	18	20	33	55
계	44	100	204	228	315

자료 : 日本 산업 경제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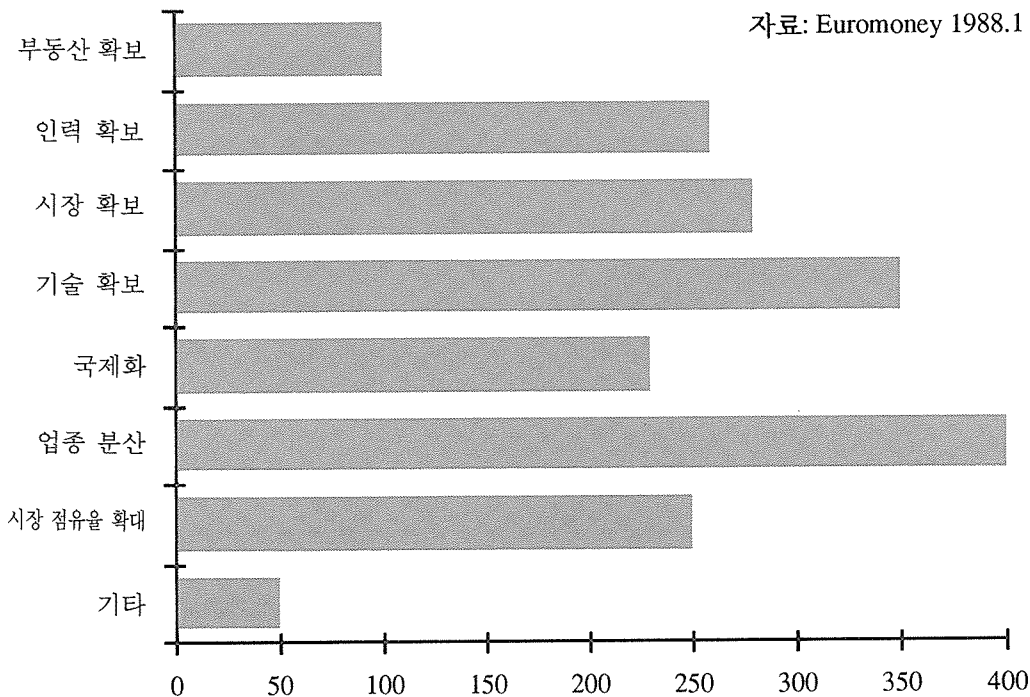
일본의 해외 기업 인수 활동을 보면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87년부터는 해외 기업 인수 건수가 국내 기업 간의 인수 건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참조

〈표 3〉, 〈표 5〉). 이러한 기업 인수는 업종 분산화, 새로운 기술 습득,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는 미국 의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소리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규모의 파악이 어려우나 상당 부분의 기업 인수가 기술 획득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듯하다 (참조 〈그림 1〉).

미국 의회의 주목을 받아 표면화된 인수 시도로는 1989년 니콘이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인 Perkin-Elmer의 반도체 제조 division 인수 시도와, Nippon Sanso의 산호세에 있는 Semi-Gas System 인수 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Nippon과 Semi-Gas System의 거래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었다.

유럽 내에서 일본 기업의 기업 매수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1992년 EC 경제 통합에 대비하여 유럽에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 역내 기업 대우를 받고자 하는 노력의

〈그림 1〉 일본 기업의 M&A 목적



〈표 5〉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매수를 통한 업종별 진출 상황

업종	일반 기계	전기 전자	수송 및 정밀	부품 업종	화학 제품	원재료	기타	디자인 센터
건수	6	1	0	6	4	21	2	9

자료 : 일본 무역 진흥회, 재유럽 일본계 제조업 경영 실태

일환으로 일본은 유럽 기업 매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원재료 업종에서 기업 인수가 매우 활발하며 기술 집약 산업인 전기 전자, 수송 기계, 정밀 기계 분야의 기업 매수 활동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의외로 디자인 센터에 대한 인수 활동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 일본인의 기업 인수 활동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참조 <표 5>).

IV. 성공적인 기술 획득을 위한 M&A 전략

M&A의 성공은 인수 후에 어떻게 서로 다른 기업을 잘 접목, 융화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 Ravenscraft와 Scherer(1987)는²⁾ 인수 합병 이후 인수된 기업의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했는데, 이는 인수 합병을 통한 서로 다른 기업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기술 획득을 위한 M&A 경우, 인수 후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현지 기술자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융화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적 융화를 위해서는

1) 가능하면 인수 전에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어 인수 대상 기업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인수 후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2) 우호적 기업 인수를 통하여 현지 기술자 및 경영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3) 기존의 경영진으로부터 인수 후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서 100% 지분 인수보다는 80%나 70%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4) 반드시 인수 대표자 중 Engineer를 포함시켜 인수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

도록 하여야 하며,

5) 마지막으로 경영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여야 하며 단기 근무보다는 장기 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콜롬비아 대학 Martin Starr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주재 일본 자회사가 미국 기업보다 더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와 같은 미국 주재 일본 자회사 성공의 한 가지 이유는 경험 많고 영어에 능통한 매니저의 파견과 7년 혹은 10년 정도의 장기 근무를 들고 있다.

V. 맺 음 말

정보, 통신의 발달로 가속화된 글로벌화는 수출의 대부분을 현지 생산으로 대체할 것이며, 현지 생산은 지역적 요구에 부응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R&D 활동의 글로벌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기업간의 신제품 개발 경쟁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적 R&D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 및 구축을 위한 R&D 글로벌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진 기술 획득을 위한 해외 기업 인수는 고급 기술 인력, 새로운 기술 정보, 판매 시장의 동시적 접근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R&D 글로벌 전략 하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1) 도쿄 First Boston 은행 부사장인 Jonathan Colby 씨는 일본에는 전혀 없는 유전 개발에 MITI가 3.5%의 조세 감면을 발표한 것은 일본이 무역 흑자 처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uromoney March, 1988)
 2) Ravenscraft, David. J. and F. M. Scherer, Mergers, Sell-offs, and Economic Efficiency, 1987, The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